



"초가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"

뜻: 자신에게 큰 손해가 생겨도, 밉고 싫어하던 것이 없어져서 속이 시원할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손해 · 만족 · 증오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초	가	삼	간	다	타	도	빈	대
죽	는	것	만	시	원	하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초	가	삼	간	다	타	도	빈	대
죽	는	것	만	시	원	하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: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초] [가] [삼] [간] [다] [타] [도] [빈] [대] [죽] [는] [것] [만] [시] [원] [하] [다]

웹에서 보기

